

6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유가·금리에 발목..다우 0.27%↓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약세로 마감했음.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71달러선까지 치솟은 점이 투자심리를 압박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4.04포인트(0.27%) 하락한 8,739.0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05포인트(0.38%) 떨어진 1,853.0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28포인트(0.35%) 하락한 939.15를 각각 기록했음. 국제유가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1달러선에 올라서면서 에너지주를 떠받쳤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오히려 기름값 급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감이 더 컸음. 여기에도 금리상승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연동된 미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 우려로 속등세를 보이며 투자심리에는 부담을 주고 있음.
美 무역적자 2개월 연 속 증가..글로벌 수요부 진 여파	미국의 무역적자가 2개월 연속 증가했음. 수입이 감소했지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늘어났음.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4월 무역적자가 전월비 2.2% 증가한 291억 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당초 276억달러로 발표됐던 전월 무역적자는 285억 3,000만달러로 수정되었음. 4월 수입은 1.4% 감소한 1,503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004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줄었음. 4월 수출은 2.3% 감소한 1,21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06년 중순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임.
금리상승 여파로 모기 지 신청, 4개월래 최저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는 `모기지 신청 인덱스`가 지난주(5일 마감기준) 611을 기록, 전주에 비해 7.2%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는 최근 피크였던 지난 4월초(1,250.6)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이후 4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임. 전체 모기지 신청중 주택구입을 위한 신청건수는 1.1% 소폭 늘었지만 대출조건을 바꾸기 위한 차환(리파이낸싱) 신청은 11.8% 감소했음. 이중 리파이낸싱의 경우엔 지난주 전체 모기지 신청중 59%를 차지했고 리파이낸싱의 비중은 지난 4월 80%에 육박했지만 최근 모기지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급감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71달러선 안착..작년 10월 이후 처음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7개월여만에 배럴당 71달러선에 올라섰음. 미국의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음.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32달러(1.9%) 상승한 71.33달러로 마감했고 이같은 마감가는 작년 10월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미국의 지난주 원유재고가 예상밖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음.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5일 마감기준) 미국의 원유재고가 440만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음.
러시아 "미국채 팔아 IMF 채권 사겠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울유카예프 러시아 중앙은행 제1부총재는 모스크바에서 이같이 밝혔음. 앞서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달 "외환보유고의 자금을 이용해 100억달러의 IMF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러시아는 미국 국채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 지난 5월말 현재 전체 외환보유고의 30%에 해당하는 4011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음.
피아트, 크라이슬러 인수 완료	피아트는 10일(현지시간) 크라이슬러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고 새로운 `크라이슬러 그룹 LLC`를 설립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 방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신설되는 `뉴 크라이슬러`는 피아트가 지분 20%를 보유하고, 전미자동차노조(UAW)가 68%, 미국 정부가 10%, 캐나다 정부 2%를 보유하게 된다. 피아트는 향후 지분을 35%까지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했음.
5월 취업자 21.9만명 ↓..10년2개월 `최악`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수는 2,37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9,000명 줄어들었음. 감소폭은 지난 1999년3월 39만명 이후 10년2개월만에 최고치. 전월 18만8,000명으로 둔화됐던 감소폭은 다시 확대된 것으로 취업자수는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음. 통계청 관계자는 "5월 지표를 종합해 보면 고용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자 임시직 등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됐다"고 말했음.
IMF "한국 2014년 돼야 재정균형	한국이 주요 20개국(G20)중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재정적자 축소에 도 불구하고 2014년에 가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 국가부채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자예산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3.2%와 4.7%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
SK네트웍스, 신용등급 `A+` 긍정적`상향	한신정은 신용평가사에서 주유소, 단말기유통, 무역 등 그룹내 핵심사업 영역에서의 영업력 강화를 통해 경기둔락과 무관하게 매출이나 이익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회사의 수익력이나 경기대응력이 제고된 것. SK에너지(096770)와 함께 그룹 자원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등급상향의 한 요인으로 꼽았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